



“윤 정부 견제하고 제주 현안 해결에 전력 다할 터”



“현 정부 제주 흉대론 바꿔 놓겠다”

제주시갑 문대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당선인은 “앞으로 소통·현장의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문 당선인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소감을 통해 “지혜로운 도민 여러분,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씀을 열었다.

문 당선인은 승리요인으로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문 당선인은 “아무래도 윤석열정부 심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명령”이라면서 “윤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문제, 민주주의의 퇴행, 평화체제 위기를 민주당이 반드시 복원하고 민생회복민주주의, 평화체제 회복을 민주당에 맡기고 명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또 하나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과 성과, 그 과정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제주시갑 현안을 해결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명령을 잘 받아들여야겠다”고 피력했다.

문 당선인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는 “수고 많았다”면서 “앞으로 고 후보의 국회 보좌관 경력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주발전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구분없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전했다.

문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무엇보다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질문에 “윤 정부가 가진 제주도 흉대론을 바꿔놓아야 하지만, 때로는 윤 정부를 설득·협상하고, 때로는 투쟁하며 윤 정부가 제주도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이어 “제주도의 민생문제는 도 예산만으로 풀 수 없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윤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1차와 3차산업 고도화, 산업구조의 다변화, 제주의 가치에 기반한 도민주도 성장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제주 경제 활성화 역점... 산자위 짬”

제주시을 김한규

“다시 한번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일 0시를 넘어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당선을 축하하는 꽃을 목에 걸고 당선인으로서 소감을 밝혔다.

김한규 당선인은 먼저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에게 “수고하셨다”며 “두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의정생활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에서 제주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다”며 “식감된 일자리 예산을 복원해서 제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제주의 활기찬 미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승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의 시간이었고 제주도민들께서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한 경고를 표심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22개월의 짧은 의정생활이었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을 해주신 점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제주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경제 관련 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돕기 위해서도 산자위에 가고 싶다”며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함께 논의해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초심 잃지 않고 지역 발전에 최선”

서귀포시 위성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3선” 고지에 오른 서귀포시 선거구의 위성곤(56) 당선인은 11일 새벽 동홍동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위 당선인은 “우리가 사는 터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시민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고기철 후보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였다”며 “여러분께서 ‘이대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고 저는 그 뜻을 받아들여 윤석열 정부

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소상공인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뿌리가 단단히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아프면 제주 시로, 서울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을 이점으로 겪고 있는 서귀포시 민들을 위한 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을 꼽았다. 제2공항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반 단체, 여야가 함께하는 ‘원탁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위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서귀포의 자량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철/건축디자인

010-2699-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2022년 정부공식 무병묘

공급업체 선정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신비향, 수라향, 설국향
궁천 5년생, 흥미향(화분)

- 유라조생 1~3년생
- 궁천 1~4년생
- 사라향
- 원터프린스
- 카리향
- 미니향·레몬
- 일남일호
- 하례조생 1~4년생
- 레드향 1~5년생
- 탐나는봉
- 황금향
- 천혜향
- 탐라향 5년생(화분)
- 유라(1~5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